

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시	2019. 11. 21.(목) 총 3매(본문1)		
국토교통부	철도운영과	담당자	·과장 이창희, 사무관 정덕기, 주무관 황선호 ·☎ (044)201-4636, 4637		
행정안전부	협업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고광덕, 사무관 김동환 ·☎ (044)205-2248		
한국철도 시설공단	철도산업정보팀	담당자	처장 염진구, 차장 김기완 ·☎ (042)607-3313		
보 도 일 시		2019년 11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1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휠체어·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. 교통약자 이동경로,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·카키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

- 앞으로 휠체어·유모차(영유아 대동) 등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이 모바일 앱을 통해 한결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,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와 한국철도시설공단(이사장 김상균)은 11월 22일(금)부터 공공데이터포털(www.data.go.kr)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그리고 편의·안전시설 정보가 담긴 역사(驛舍)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정보공개는 '18년 7월 종료된 「ICT기반 철도 이용객 정보 제 공기술 개발 R&D(주관연구기관 : 한국철도기술연구원)」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.
- 공개되는 역사정보는 전국 도시철도 1,010개 역사 중 981개 역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철도역사의 기본적인 도면과 함께 편의시설 위치,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(엘리베이터·휠체어 리프트 등)을 활용한 이동경로 정보 등을 제공한다. 또한 발빠짐 사고예방 등을 위해 승강장의 탑승위치 별 승강장-차량 간격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.

-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은 민간이 앱·서비스 개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며, 향후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산업정보센터(www.kric.go.kr)에서 정보관리를 담당하여 안정적인 정보 공개 및 정보 관리, 잔여 역사 정보 추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
< 역사 데이터 정보 제공 및 활용 >



- 특히, 국토교통부·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협업하여 카카오 맵을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를 시범 개발 중에 있으며, 이르면 내년 초에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.
- 우리나라 교통약자는 '18년 기준 29% 수준이며, 향후 고령화 등에 따라 교통약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교통약자가 도시 철도역에서 환승할 경우 일반인 대비 10~20분가량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.
- 이번 역사 데이터 개방을 통해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이러한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더 많은 지하철·길안내 서비스에서 관련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그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이동편의 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, 경로안내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. 이번 정보공개가 서비스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·행정안전부·철도시설공단은 11월 22일부터 24일 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전시장에 부스를 설치하고, 교통약자 도시철도(지하철) 이동 안내 서비스 체험행사를 실시한다.

- 방문객들은 체험장에 마련된 동내문역사문화공원역, 강남역, 광화문역 등 3개역을 대상으로 출입구와 승강장 간 이동경로, 환승경로 검색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정덕기 사무관(☎ 044-201-46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